

## 2026년 국제 현충일 쉬임 특별 집회 표어

우리는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하고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양 떼를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이 시대를 끝내는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양 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해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며,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공급해야 한다.

2026년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국제 현충일 쉬임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새로운 부흥에 대한 큰 필요성**

메시지 1  
**주님과 동역하여 이 시대를 끝낼 새로운 부흥을 가져옴**

성경: 합 3:2, 행 26:19, 22, 마 14:19, 22-23, 빌 1:19-22, 25, 요 21:15-17

- I.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에는 언제나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왔다 — 합 3:2, 호 6:2, 롬 8:20-22, 시 119:25, 50, 107, 154, 요 6:57, 63, 고후 3:3, 6.
- II.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에도 달함으로써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딤펴전 1:3-4, 고전 9:17, 행 26:19, 22).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다루시는 목적과 관련한 위대한 질문에 대한 위대한 답변이다(창 1:26, 욥 10:13, 비교 엡 3:9).
- A.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엡 1:10, 3:9, 딤펴전 1:4).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 담긴 그분의 영원한 의도로서,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곧 아버지로서 아들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분배해 놓으시어 그들의 생명과 본성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과 똑같은 그분의 복사판으로 만드시어(롬 8:29, 요일 3:2), 그들을 하나님의 충만 곧 하나님의 표현(엡 1:22-23, 3:19)을 위해 유기체, 곧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엡 2:15-16),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하시는 것이다(계 21:2-22:5).
- B.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정수(精髓)이자,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 창 1:26, 요 12:24, 롬 8:29.
1. 하나님은 육체 되심을 통해 사람의 인성에 참여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사람은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 요 1:14, 고후 3:18, 골 3:4, 벧후 1:4, 빌 2:5, 롬 8:29, 히 2:10, 엡 1:5, 롬 8:19, 요일 3:2, 요 1:12-13.
  2. 이러한 신성하고 인간적인 로맨스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며, 우주 전체의 비밀이다 — 아 1:1, 6:13, 비교 합 1:1, 2:4, 롬 1:17.
    - a. 그리스도는 신성하시고 인간적이며, 그분의 변화된 연인은 인간적이고 신성하다. 그들은 생명과 본성에서 동일하며 서로 완전히 어울린다.
    - b. 완결되시어 남편이 되신 삼일 하나님과 변화되어 신부가 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은 한 부부, 곧 단체적이며 위대한 하나님-사람이 된다 — 계 21:2, 9, 22:17상.
- C. 하나님의 중심 계시이자 주님의 회복의 중심 계시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요 1:1, 14),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며(고전 15:45하), 생명 주시는 영은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계 1:4, 3:1, 4:5, 5:6) 교회를 건축하시고(마 16:18),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엡 4:15-16)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는 것이다(계 21:2, 9, 22:17상, 비교 창 2:22, 요 19:34).
- D. 하나님과 사람은 한 실체가 될 것이고, 그 한 실체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다. 이러한 연합은 성경 전체의 결론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 계 21:3, 22, 2, 9, 비교 레 2:4-5, 시 92:10.
- E. “나는 온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이 계시를 보고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새로운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하기 바란다.” — 역대상·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 22쪽.

Ⅲ.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실행한다면, 자연스럽게 단체적인 본,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사는 본이 세워질 것이다. 이 본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되어 주님을 다시 모셔 올 것이다 — 시 48:2과 각주 1, 계 3:12, 21.

- A.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통해 일으켜져 이 계시에 따라 생활하는 단체적인 한 백성이 필요하시다. 부흥은 우리가 본 이상을 실행하는 것이자 이상이 실행된 상태이다.
- B.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마 5:1, 28:19)은 하나님-사람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인간 생활을 통해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다. 그리스도는 인성에 있어서 그분 자신을 부인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사셨는데(요 5:19, 30), 이러한 그분의 인간 생활은 사람에 관한 그들의 관념을 혁신시켰다(빌 3:10, 1:21상).
- C. 우리의 생활은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생활의 본의 복사판이자 재생산이어야 한다 — 벧전 2:21, 마 11:28-29, 엡 4:20-21, 요 17:4, 5:17, 빌 1:19-22, 25.
- D.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어지신, 생명과 실재의 영은 제자들이 삼 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지켜본 것의 모든 실재 안으로 그들을 안내하셨다 — 요 16:13, 20:22.
  - 1. 첫 번째 하나님-사람의 사역의 시작에서 그분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의 육체(그분의 인성 — 요 1:14, 롬 1:3, 8:3)에 따르면 자신이 죽고 장사되기에만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마 3:15-17).
  - 2.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그분에게서 배우도록 훈련시키셨다(마 11:29).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복하신 것(마 14:19)은 축복의 근원이 보내심을 받은 자신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신 아버지이신 것을 인식하셨음을 가리킨다(요 10:30, 5:19, 30, 7:6, 8, 18).
  - 3. 주님은 무리와 함께 기적의 결과 안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 산에서 기도하시며 은밀히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 마 14:22-23, 눅 6:12.
  - 4. 주님은 하나님을 접촉하시며(막 1:35, 눅 5:16, 6:12, 9:28, 히 7:25)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생활을 하셨고(행 10:38상, 요 8:29, 16:32), 사람들을 접촉하며 하나님을 그들 안에 공급하시어 그들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회년 안으로 이끄는 생활을 하셨다(눅 4:18-19, 히 8:2, 비교 창 14:18, 행 6:4).
  - 5. 주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그분 안에서 아무것도(그 어떤 일에서도 아무런 입지나 기회나 희망이나 가능성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셨다 — 요 14:30하, 비교 20절, 고후 12:2상, 골 1:27, 딤후 4:22, 요 3:6하, 4:23-24, 요일 5:4, 18.
- E. 주님의 본에 따라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전 존재를 연합된 영에 두고, 연합된 영에 따라 행하고 살며 처신하는 것이다 — 롬 8:2, 4, 10, 6, 11, 16, 고전 6:17, 롬 10:12, 갈 5:25, 엡 6:17-18, 살전 5:16-20, 딤펢전 4:6-7, 딤펢후 1:6-7.
- F. “우리는 모두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선포해야 한다. 결국 하나님-사람들은 승리자들, 이기는 이들, 예루살렘 안의 시온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 올 것이고, 이 시대를 끝낼 것이다.” — 역대상·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 37쪽.

Ⅳ. 우리가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인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기 위해,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 요 21:15-17, 벧전 2:25, 5:1-4, 히 13:20-21, 계 1:12-13.

- A.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역에서 보여 주신 본에 따라 사람들을 목양해야 한다 — 마 9:36, 요 10:11, 히 13:20, 벧전 5:4.

1.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 전체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로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를 보양하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심으로써, 즉 그분의 죽음을 통해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를 보살피시며(딤후 1:15, 엡 1:7),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를 보양하심으로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넘치게 나누어 주시어, 부활 안에서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고 계신다(요 10:10, 고전 15:45하, 엡 5:29).
  2.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구주의 목양하고 찾는 영이 없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이다 — 눅 15:1-24.
  3.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사람들을 보살피야 하며(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해야 하며)(마 9:10, 눅 7:34),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사람들을 보양해야 한다(세 단계의 사역 안에 계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여야 한다)(마 24:45-47).
  4. 그리스도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다가 의도적으로 우회하여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야 했는데, 이는 부도덕한 한 여인을 얻으시기 위해서였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시며 그 여인을 소중히 보살피셨는데, 이는 생명수의 강으로서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으로 그 여인을 보양하시려는 것이었다 — 요 4:3-14, 계 22:1.
  5. 죄 없는 분이신 주님은 간음한 여인을 유죄판결 하지 않으시고 법리적으로는 죄들을 용서하시고 유기적으로는 죄들에서 해방하심으로써 보살피셨다(요 8:1-11, 32, 36).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첫 번째로 구원하신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였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눅 23:42-43).
  6. 주님은 단지 세리장 한 사람을 방문하여 얻으시려고 여러고에 가셨으며, 이러한 주님의 복음 전파는 일종의 목양이었다(눅 19:1-10). 주님은 또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심으로써 그들의 부모를 보살피셨다(마 19:13-15).
- B.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기 위해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권유하는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목양했다 — 살전 2:7-8, 11-12, 딤후 1:16, 행 20:28.
1. 바울은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행 20:20) 에베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삼 년 동안 눈물로 성도들 각 사람을 훈계하며(31, 19절), 하나님의 모든 의결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써(27절) 그들을 목양했다.
  2.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친밀한 관심을 가졌으며(고후 7:2-7, 몬 7, 12),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그들의 수준에까지 내려갔다(고후 11:28-29, 고전 9:22, 비교 마 12:20).
  3.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가진 것 곧 그의 소유물을 기쁘게 소비하고, 그의 존재 곧 그 자신까지도 기쁘게 소비하고자 했다(고후 12:15). 그는 전제물로서, 곧 포도주를 생산하는 분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했다(빌 2:17, 사 9:13, 엡 3:2).
  4. 바울은 그 영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함으로써 그 영을 공급하여 사람을 존귀하게 할 수 있었다 — 고후 3:3, 6, 8, 갈 5:16, 25, 사 9:9.
  5. 바울은 그의 가르침에서 교회가 사람들을 양육하는 가정이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병원이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는 학교임을 시사했다 — 엡 2:19, 살전 5:14, 고전 14:31.
  6.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임을 제시했다 — 고전 8:1, 12:31, 13:4-8상, 엡 1:4, 3:17, 4:2, 15-16, 5:2, 6:24, 계 2:4-5, 골 1:18하, 살전 1:3.
- C. “나는 우리가 목양에 관한 이러한 부담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바란다. 모든 교회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에 참여한다면 회복 안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 활력 그룹, 개정판, 4장, 68쪽.

## 메시지 2

###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함

성경: 딤후전 1:4, 엡 1:10, 3:9, 롬 1:3-4

#### I.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이다.

A.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설명인 성경 전체는 영원의 두 부분과 시간이라는 다리에서 볼 수 있는 삼일 하나님의 자서전이다.

1. 삼일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직접 움직이시기 위해 영원에서부터 시간 안으로 오시고,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인성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육체 되신 하나님이 되셨다. 이것은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다 — 요 1:14, 29.
2. 부활 안에서 그분은 복합되신 하나님,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것은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볼 수 있다 — 요 1:32, 42, 고전 15:45하, 빌 1:19.
3. 영원 미래에 그분은 단체적인 하나님, 곧 새 예루살렘이 되실 것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볼 수 있다.
4.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믿는 이들의 우주적이며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이다 — 요 1:51, 계 21:3, 22.
5. 하나님의 중심 계시와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며, 생명 주시는 영이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를 건축하신다는 것이다.

B.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본질이자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 창 1:26, 요 12:24, 롬 8:29.

1. 하나님은 육체 되심을 통해 사람의 인성에 참여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다. 사람은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된다.
  - a.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 요 3:15, 골 3:4.
  - b.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 엡 1:4, 벨후 1:4.
  - c.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함으로써 — 엡 4:23, 빌 2:5.
  - d.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함으로써 — 고후 3:18하, 엡 3:8.
  - e.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함으로써 — 고후 3:18상, 롬 8:29.
  - f.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 롬 8:30, 히 2:10.
  - g.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참여함으로써 — 엡 1:5, 롬 8:23.
  - h.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참여함으로써 — 롬 8:19.
  - i. 하나님의 모양을 지님 — 요일 3:2.
  - j. 하나님 종류, 곧 하나님 종(種)이 됨 — 요 1:12, 롬 8:14, 16.
2. 이러한 신성하고 인간적인 로맨스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며, 우주 전체의 비밀이다 — 아 1:1, 6:13.

#### II. 신성한 계시의 고봉, 곧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계시이다 — 삼하 7:12-14상, 롬 1:3-4, 엡 3:17상.

- A.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된다' — 딤후 1:4.
- B.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표현이 확대되고 확장되어, 그분의 모든 신성한 속성들이 사람의 미덕들로 표현되게 하는 것이다 — 엡 3:9, 1:10.
  - 1.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사람과 하나 되시고,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시는 것이다 — 엡 1:5, 9.
  - 2.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은 그분 자신을 대량 재생산하심으로써 새로운 종류 곧 하나님-사람 종류를 산출하는 것이다 — 요 1:1, 14, 12:24.
- C.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조성 성분으로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어,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 엡 3:17상, 골 3:4, 10-11.
- D. 하나님은 육체 되심을 통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은 거듭남과 거룩하게 됨과 새롭게 됨과 변화됨과 같은 형상이 됨과 영광스럽게 됨을 통해 하나님이 된다 — 요 3:5-6, 1:12-13, 롬 6:19, 22, 12:2, 8:29-30.

**Ⅲ.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써만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될 수 있다. 이 요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상의 고봉이다 — 롬 8:3, 1:3-4, 8:14, 12:4-5.**

- A.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기 위한 것인데, 이 몸은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며 이 몸의 궁극적인 나타남은 새 예루살렘이다 — 엡 1:22-23, 4:4-6, 계 21:2, 9-10.
- B. 성경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유기체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 롬 1:3-4, 12:4-5.
  - 1. 이 유기체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결합시키고 연합시키시어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다.
  - 2.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결과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이 유기체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과 연합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 엡 4:4-6, 12.
- C.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사람이 되게 하였고,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게 하셨다. 이러한 생활이 그분과 똑같은 우주적인 한 사람, 곧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산출한다 — 롬 8:3, 12:4-5.
- D.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고 연합되어 한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을 살아 내는 것이다 — 엡 4:4-6, 24.

### 메시지 3

## 새로운 부흥을 위한 하나님-사람의 생활

성경: 레 1:3, 9, 6:8-13, 요 21:15-17, 요일 3:14, 5:1, 2:6, 4:17, 갈 6:2-3, 롬 8:2

### I.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나님-사람의 생활의 실지 상태인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엡 4:21)가 실재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 안에 복사되어, 새로운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20-24절).

- A. 사복음서는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생활의 본, 곧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하고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생활의 틀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는 생활을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의 의미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틀 안으로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 — 롬 8:28-29, 엡 4:20-21.
- B.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함으로 신성한 생명을 사는 하나님-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에 의해 온전하게 되고 있다 — 마 11:29상, 17:5하, 벰전 2:21.
  - 1.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에 계시된 대로 이 땅에서 사실 때, 하나의 본을 세우셨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통하여 그분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께 배우는 것이다 — 고전 15:45하, 골 3:4.
  - 2.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우리는 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며, 이 실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 고전 1:30, 고후 5:17, 12:2상, 골 1:27, 갈 2:20, 롬 8:10.
- C.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복음서들에 묘사된 틀, 모습, 본에 따라 그분을 살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 틀의 형상으로 형태 지어지고 이 틀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의 의미이다 — 마 11:29, 롬 8:29.
- D.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 살 때, 우리는 실재의 영에 의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본이신 그분에게서 배움으로 그분의 전기(傳記)가 우리의 역사(歷史)가 되게 한다.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은 복음서들에 계시된 예수님의 생활과 똑같아야 한다 — 갈 6:17-18, 롬 1:1, 9, 엡 4:20-24, 빌 2:5, 마 11:29, 벰전 2:21.
- E.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목적은 그분께서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분을 먹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그분과 똑같은 우주적이고 위대한 사람, 곧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다 — 애 3:22-24, 55-56, 계 2:4, 7, 요 6:57, 63, 렘 15:16, 엡 6:17-18, 시 119:15.

### II.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생활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생활을 반복하는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은 번제물로서 여러 체험을 겪으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생활이다 — 레 1:9, 요 8:29, 고후 5:9.

- A. 번제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번제물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1:3, 민 28:2-3, 요 5:30, 6:38, 8:29, 히 10:5-10.

- B. '번제물'로 번역된 단어는 '위로 올라가는 어떤 것'을 뜻한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레 1:3, 10, 14). 땅에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활인데,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인 생활을 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요 6:38).
- C. 번제물은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였다(레 1:9). '만족시키는 향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직역하면 '안식의 향기' 혹은 '만족의 향기'를 의미한다. 만족시키는 향기는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향기이다. 만족시키는 이러한 향기는 하나님께 누림이 된다.
- D.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번제물의 실재이다. 이 생명은 순종의 생명, 복종의 생명,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생명이다 — 빌 2:8, 요 5:19, 30, 히 5:8, 10:7.
1.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밖에서 홀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 시 40:7-8, 요일 3:4.
  2.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눅 18:17)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항상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자기 확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원수이다.
- E. 합당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안수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며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신 생활 곧 번제물의 생활을 우리 안에서 반복하신다 — 레 1:4, 고전 6:17, 갈 2:20.
- F. 이러한 연결, 곧 이러한 동일시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결함과 흠을 가져가신다 — 고후 5:21, 갈 2:20상.
- G.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태우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지속적인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태울 수 있고, 또 재로 감소되어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 — 시 20:3, 레 1:16, 6:8-13, 고전 3:12상, 계 3:12, 21:2, 10-11, 18-21.
1. 재는 감소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는 감소되어 재가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감소되어 재가 된다. 즉 감소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 무(無)가 된다 — 막 9:12, 사 53:3, 고전 1:28, 고후 12:11.
  2. 우리는 죽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될수록 자신이 한 줌의 재가 되었음을 더욱더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재가 될 때 더 이상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종결되고 불태워진 사람이다 — 갈 2:20상.
- H. 재를 제단 동쪽, 해가 뜨는 곳에 두는 것은 부활을 함축한다 — 레 1:16, 요 11:25, 빌 3:10-11, 고후 1:9.
1.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넘겨지신 것을 의미하지만, 동쪽은 부활을 상징한다 — 막 9:31.
  2.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소되어 재가 될수록 더욱더 동쪽에 두어질 것이고,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 부활의 일출을 체험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 빌 3:10-11.
- I. 결국 재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 계 3:12, 21:2, 10-11.
1.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끝내고 감소시켜 재가 되게 하며, 부활 안에서 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가 된다 — 고전 3:9하, 12상.
  2. 감소되어 재가 될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일 안으로 이끌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귀한 재료들이 된다 — 롬 12:1-2, 고후 3:18, 계 21:18-21.

Ⅲ. 번제물의 실재이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약 사역을 수행하실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요 5:19),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으며(4:34, 17:4),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14:10, 24), 자신의 뜻으로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으며(5:30),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7:18). 그분은 오직 하나님

으로만 만족하셨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다(사 42:4, 50:4-5, 53:2상, 비교 요 4:13-14, 6:15, 막 9:7-8).

- A. 주님의 생활은 주님의 일과 움직임과 사역이었다. 그분의 일은 그분의 생활이었고, 그분의 움직임은 그분의 존재였다. 그분께는 그분의 생활과 일과 움직임과 사역이 차이가 없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사셨다 — 비교 눅 22:26-27, 요 10:10하, 고전 15:45하, 요일 5:16상, 고후 3:6, 빌 1:25.
- B. 주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다. 그분은 기도하시기 위해 자주 산으로 가지거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물러가셨다 — 마 14:23, 막 1:35, 눅 5:16, 6:12, 9:28.
- C.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분은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려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게 하셨다 — 마 14:22-23.
  - 1.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써(마 3:17) 사람의 위치에 서 계시는(4:4) 하늘의 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은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시기 위해서였다.
  - 2. 그분은 외딴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아버지를 접촉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까지 떠나 산에서 기도하셨다.
- D.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기도의 사람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 계시므로 그분은 결코 혼자 계시지 않았다. 매 순간 그분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 요 5:19, 16:32, 시 16:7-8, 비교 27:8.

IV. 우리가 하나님 자신인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이다’(요일 4:17). 번제물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요일 3:14, 5:1, 2:6).

- A.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은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이다(롬 8:2, 갈 6:2). 사랑의 법이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실질화되어야만 우리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으로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여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다(갈 6:3).
- B.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우리는 자동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목양하고 찾는 영을 가진 목자들이 될 것이다 — 요 21:15-17, 눅 15:3-7.
- C.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고전 15:58)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행 20:35)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살전 5:14) 사랑의 수고가 된다(살전 1:3). ‘연약한 사람들’은 영이나 혼이나 몸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롬 14:1, 15:1).
- D.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목양하시고, 그에게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는 위임을 주셨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켜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를 돌보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돌보는 것은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으로 귀결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할 것이다 — 요 21:15-17.

메시지 4

신성한 종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삶으로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함

성경: 막 1:15, 요 3:3, 5-6, 1:12-13, 벤후 1:4, 요일 3:1

- I.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종(種)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다 — 요 3:3, 5-8.
- II. 하나님-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종에 참여할 신성한 권리가 있다 — 요 3:3, 5-6, 18:36.
- III.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고 있다 — 막 1:15, 요 14:17하, 20, 롬 8:9상, 10, 갈 5:25.
  - A.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조성되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조성됨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되어 한 실체가 되었다. 이 한 실체를 우리는 하나님-사람이라고 부른다 — 마 1:21, 23, 눅 1:35, 딤후 2:13, 딤후전 2:5.
  - B.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님-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복사판이자 연장이다 — 요 12:24, 히 2:10, 롬 8:29.
  - C. 하나님-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여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 요 1:12-13, 3:15, 벤후 1:4, 고전 6:17.
  - D. 하나님-사람은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하나님을 그의 생명과 본성과 모든 것으로 소유한다. 하나님-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지만 사람이다 — 엡 3:16-17상.
  - E.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은 사람이 하나님을 살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인간 미덕들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분의 인간 미덕들은 신성한 속성들로 채워지고 신성한 속성들과 연합되고 신성한 속성들로 적셔졌다 — 눅 1:26-35, 7:11-17, 10:25-37, 19:1-10.
  - F. 첫 번째 하나님-사람의 재생산과 복사판인 우리는 그분께서 사신 것과 똑같은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한다.
    1.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사람의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기 위한 본을 세웠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성 안에서 표현되시도록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 갈 2:20.
    2. 주 예수님은 영적이 되거나 거룩하게 되거나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한 삶을 사셨다.
    3.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신 것을 보며, 사도행전에서 제자들도 그러한 생활을 한 것을 본다.
    4. 그리스도는 고난의 삶, 곧 고난받는 삶을 사셨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동반자들로서 동일한 종류의 삶을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간주하신다 — 히 3:14.
    5.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며, 그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그분을 확대해야 한다 — 마 16:24, 빌 3:10, 1:19-21상.
    6.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신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살고 계신 그 영이시다. 우리는 반드시 자기 수양을 하거나 타고난 사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거절해야 하고, 그분 외의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우고 점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단체적으로 그분을 살고 표현할 수 있다 — 엡 3:16-19, 1:22-23.

**IV.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고 있다 — 롬 14:17.**

- A.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자신이다 — 막 1:15, 마 6:33.
- B.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과 이 생명의 모든 활동의 총체인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이다 — 요 11:25, 10:10하, 14:6.
- C.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의 영역으로서, 이 생명이 움직이고 일하고 다스리고 통치함으로써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 D.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성된 한 유기체로서, 그분의 다스림을 위한 생명의 영역이다.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에 의해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신성한 삼일성이신 그분 자신을 신성한 생명 안에서 표현하신다 — 요 15:1-8, 16, 26.
- E.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통치의 영역일 뿐 아니라, 모든 신성한 것들이 있는 신성한 종(種)의 영역이다 — 요 3:3, 5-6, 18:36.
  - 1.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하나님 종을 가리킨다.
  - 2. 하나님은 사람 종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은 신성한 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 요 1:1, 12-14, 롬 8:3, 1:3-4.
  - 3. 신성한 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져야 한다 — 요 1:12-13, 3:3, 5-6, 15, 벧후 1:4.
    - a.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 종류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하시어, 사람이 하나님 종류 곧 하나님 종이 되게 하셨다 — 창 1:26.
    - b. 믿는 이들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들이며, 아담보다 더 하나님 종류이다 — 요 1:12-13.
      - (1) 아담에게는 겉의 모양만 있었을 뿐 신성한 생명의 내적인 실재는 없었다.
      - (2)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인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실재를 갖고 있으며, 우리의 온 존재가 변화되어 주님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 — 고후 3:18, 롬 12:2, 8:29.
      - (3) 우리는 두 번째 출생인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 종이 되었다 — 요 3:3, 5-6.
      - (4)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종류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종류 곧 하나님 종이다 — 롬 8:19, 히 2:10.
      - (5)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신성한 종의 신성한 영역 안에 있다 — 요 1:12-13, 3:3, 5.
      - (6) 믿는 이들은 신성한 종 안에, 곧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사람들이다 — 요일 3:1상, 요 3:5.
- F. 우리는 생명의 감각에 의해 신성한 생명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산다 — 롬 8:6.
- G.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고 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오늘날의 교회생활이 왕국임을 보여 주는 확고한 증거이다.
- H. 우리가 우리 존재 중에서 새 창조물인 그 부분, 곧 하나님의 왕국의 요소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 I.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아 천국의 출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딤후 4:18.

**V.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신성한 종의 영역 안에서 사는 믿는 이들의 생활의 여러 방면을 본다 — 요 1:16, 15:4상, 9, 11, 4:23-24, 14:2, 20, 23, 17:22-24.**

- A.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 요 1:16.

- B.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 요 4:14하.
- C.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 요 6:57하.
- D.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 요 12:26.
- E.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 요 14:2.
- F.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 요 14:20.
- G.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 요 14:23.
- H.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 요 15:4상.
- I.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 요 15:7.
- J.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 요 15:9.
- K.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요 15:11.
- L.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남겨 드립니다.” — 요 16:33상, 14:27상.
- M.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 그들을 지키시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 요 17:11하.
- N.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요 17:22.
- O.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 요 17:23상.
- P.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도록 하여 주시고 …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 요 17:24.

메시지 5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새로운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양 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

성경: 요 10:11, 16, 21:15-17, 벰전 2:25, 5:4, 히 13:20, 계 1:13, 2:1, 7

- I.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는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심부터 목양하심을 거쳐 오는 시대에 왕권을 얻으심까지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 A. 부활과 승천 안에 계신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과 교회를 산출하는 부활에 대해 말하는 시편 22편과, 왕으로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온 땅을 다시 얻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시편 24편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 B.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목양하시며, 우리는 사람들을 목양함으로써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받아들인다면, 이 땅에 주님을 다시 모셔 올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 II. 요한복음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을 계시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완성이자 완결이다.
  - A. 요한복음은 스물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20장으로 끝난다.
  - B. 요한복음 전체는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을 다룬다.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체 되심을 통해 육체 안의 사람이 되신 것으로 시작해서(요 1:14),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으로 끝마친다(20:22). 따라서 21장은 부록에 해당한다.
  - C.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좀 더 내재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이자 완결이다.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사도들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요한복음 전체를 완결한다.
  
- III.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과 16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제자들에게 밝혀 주신다. 이 선한 목자가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다른 양들(이방인들)을 얻으셔서 그들을 이끌어 처음 양들(유대인 믿는 이들)과 함께 결합하여,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A. 주님의 목양하심은 먼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안에 있었다 — 마 9:36, 비교 10:1-6.
  - B. 주님의 목양하심은 다음으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있으며(벰전 5:4),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한 것이다.
  
- IV.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위임하셨다.
  - A. 주님은 부활하신 후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하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그중 한 번,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들에 있는 동안에 베드로에게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위임하셨다 — 요 21:15-17.
  - B.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양 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이다.
  - C.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6:4)라고 말했다. 이것은 중보기도 하시고(히 7:25)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 안으로 공급하시는(8:2)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것이다.

D.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위임에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 서신서에서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 벵전 2:25.

1.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지만, 또한 우리 내적 존재의 상태와 상황을 감독하시며 관찰하신다.

2.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존재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참된 인격인 우리 혼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 — 비교 히 13:17.

E.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라고 권한다. 이렇게 목양한다면, 목자 장께서 나타나실 때 신실한 장로들인 그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 벵전 5:1-4.

F. 베드로의 말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양 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임을 가리킨다.

**V. 다음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도 사도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된 것임을 보여 준다.**

A.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라고 말했다.

B. 바울은 “나는 압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양 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행 20:29)라고 말했다. 사도는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으며(행 20:24), 자신과 하나님께 보배와 같은 교회의 장래를 매우 염려했다.

C.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 하나님께서”라고 말한다.

1. 영원한 언약은 한 양 떼를 얻기 위한 신약의 언약이다. 이 양 떼는 몸으로 귀결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목양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큰 목자가 되게 하셨다.

**VI.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된 사도들의 사역의 주된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 비교 엡 3:2, 8-9, 벵전 5:10.**

**VII.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주된 목표와 궁극적인 완결을 위해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는 문제는 아가에서도 언급된다.**

A.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말해 주세요. 당신은 어디서 (만족을 위해) 양 떼를 먹이시나요? / 한낮에는 어디서 (안식을 위해) 양 떼를 쉬게 하시나요?” — 아 1:7상.

B.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 그대의 어린 염소들을 먹이도록 하오.” — 아 1:8하.

C.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나는 그이의 것 / 그이는 백합화들(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인답니다.” — 아 2:16.

D.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 그이는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인답니다.” — 아 6:3.

**VIII. 믿는 이들을 목양하는 것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목양하는 길을 취해야 한다.**

- A.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부흥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목양하며, 사람들을 양 떼처럼 함께 모이게 하고 싶습니다.”
- B. 요한복음 10장과 21장에서 주님은 목양에 관해서 ‘먹이다(feed)’, ‘목양하다(shepherd)’, ‘양 떼(flock)’(요 10:16, 21:15-16), 이렇게 세 단어를 사용하셨다. 우리는 또한 ‘양 떼’를 ‘모이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할 수도 있다.
- C.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무리지어 모이는지를 배움으로 함께 섞일 수 있어야 한다. 장로들과 동역자들은 앞장서서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

**IX.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금등잔대를 유기적으로 보수하는 것인데, 이 사역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살피고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함으로써, 그분의 유기적인 목양을 통해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 계 1:13, 2:7, 요 10:11, 14, 벰전 2:25, 5:4, 히 13:20.**

- A. 사람의 아들은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시고,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사랑의 표시이다.
  - 1. 그리스도는 허리에 띠를 띠심으로 교회들을 산출하는 신성한 일을 위해 강화되셨지만(출 28:4, 단 10:5), 이제는 가슴에 띠를 띠시고 자신이 산출하신 교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신다(계 1:13).
  - 2.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힘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가슴은 금과 같은 이 힘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발휘되고 사용되어 교회들을 보양하는 것을 상징한다.
- B.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시며 보살피신다 — 계 1:13상.
  - 1. 그리스도는 등잔대들의 등잔들을 손질하여 합당하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심으로써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게 하신다 — 출 30:7, 비교 시 42:5, 11.
    - a. 주님의 임재는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우리의 존재를 보살핌으로써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와 치료와 씻음과 격려를 준다.
    - b.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의 보살피는 분위기를 누리면서, 보양하는 생명 공급을 받을 수 있다 — 엡 5:29, 비교 딤후전 4:6, 엡 4:11.
  - 2. 그리스도는 등잔대의 등잔들의 심지를 손질하시면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잘라 내신다 — 출 25:38.
    - a. 심지의 검게 탄 부분 곧 불뚝은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자아와 옛 창조물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잘라 낼 필요가 있는 것들을 상징한다.
    - b. 그리스도는 교회들 사이의 모든 차이점(잘못과 부족과 실패와 결점)을 잘라 버리심으로써 교회들을 본질과 외양과 표현에 있어서 똑같이 되게 하신다 — 비교 고전 1:10, 고후 12:18, 빌 2:2.
- C. 그리스도는 가슴에 있는 금띠로 상징된 그분의 신성과 신성한 사랑으로 교회들을 돌보심으로써 보양 하신다 — 계 1:13하.
  - 1.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된 그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보양하심으로써,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게 하신다.
  - 2. 거니시는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각 교회의 상태를 알게 되시며, 말씀하시는 영으로서 그분은 등잔대들을 정돈하시고, 신선한 기름이신 그 영을 공급하시어 등잔대들을 채우신다 — 계 2:1, 7, 비교 출 27:20-21, 슥 4:6, 11-14.
  - 3. 그분의 움직임에 참여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한다.

**X.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을 통해 우리는 오늘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우리의 복으로 누릴 것이다 — 사 49:10, 계 7:9-17, 요 6:35, 4:13-14, 시 36:7-9, 91:1, 사 12:1-6, 계 22:1.**

메시지 6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성경: 요 21:15-17, 행 20:28, 벧전 5:2, 4, 엡 4:16

- I.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는 목양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
- II. 목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 떼를 돌보는 것이다 — 요 21:15-17, 행 20:28.**
- A. 목양하는 것은 양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는 것을 가리킨다.
  - B. 모든 양들은 충분히 공급을 받고, 세심하게 돌봄을 받아야 한다.
- III.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 큰 목자, 목자장, 우리 혼의 목자이시다 — 요 10:9-17, 히 13:20-21, 벧전 5:4, 2:25.**
- A.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요 10:10-11.
    - 1. 그분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시려고 자신의 혼생명 곧 인간 생명을 버리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분의 조에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을 함께 나누어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요 10:11, 15, 17.
    - 2. 그분은 그분의 양들을 우리에서 나오게 하시어, 먹이는 장소인 풀밭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셨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분을 자유롭게 먹고 그분에게서 보양을 받을 수 있다 — 요 10:9.
    - 3. 주님은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그분의 목양 아래 한 양 떼(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셨다 — 요 10:16.
  - B. 하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다 — 히 13:20.
    - 1. 영원한 언약은 목양함으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한다는 것이다.
    - 2. 영원한 언약은 한 양 떼를 얻고자 하는 새 유언의 언약이다. 이 양 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이다.
  - C. 목자장으로서 그리스도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통해 그분의 양 떼를 목양하신다 — 벧전 5:4.
    - 1. 장로들의 목양이 없다면 교회는 건축될 수 없다.
    - 2. 장로들의 목양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 목양하시는 것이어야 한다.
  - D. 우리 혼의 목자로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감독하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황을 돌보신다 — 벧전 2:25.
    - 1. 그분은 우리 혼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
    - 2. 우리의 혼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을 목양해 주시는 것,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여러 문제와 필요와 상처를 돌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 IV.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며,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공급해야 한다.**
- A.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이 요구된다 — 요 14:20, 고전 6:17, 엡 3:17상, 골 3:10-11.

- B. 하나님을 사는 이들만이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수 있다 — 빌 1:21상.
- C.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시어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 창 1:26, 엡 1:11, 3:11, 딤후 1:9.
- D.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고자 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 고후 1:3-4, 12, 15-16, 2:10, 10:11, 11:2.
- E.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다.
  1.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는 생명을 흘려 보내기 위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얼마나 파쇄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 고후 4:10-12, 16, 히 4:12.
  2.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려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와 영과 생명에 속한 말을 하여, 우리의 존재 안에 일해 넣어지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공급해야 한다 — 엡 3:16-17상, 4:25, 29, 요 6:63.

**V.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라고 당부했다 — 벰전 5:2.**

- A. '하나님을 따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 B.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일 때 하나님이 되며, 다른 이들을 목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다.
- C.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우리의 선호나 흥미나 목적이나 기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과 갈망과 길과 영광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 D.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어떠함에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 E.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우리는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1. 우리는 신성한 생명으로 넘치도록 채워져야 하고, 원천과 샘과 강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림으로 신성한 생명의 총체가 되어야 하며, 심지어 신성한 생명 자체가 되어야 한다 — 요 4:14, 골 3:4.
  2. 우리는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3.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 곧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 목양할 때 기질과 특이함을 지닌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해야 한다.
  4. 하나님은 그분의 어떠하심에 따라, 그리고 그분의 경륜의 목표에 따라 양 떼를 목양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양 떼를 목양하시는 하나님의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VI.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목양은 상호 목양이다 — 고전 12:23-26.**

- A.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목양 아래 있어야 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다른 이들을 목양해야 한다 — 요 21:15-17.
- B. 모든 믿는 이들은 생명이 얼마나 자랐든 목양이 필요하다.
- C. 우리는 모두 결점과 부족이 있으며, 우리를 목양해 줄 다른 이들이 필요하다.
- D. 우리는 양들인 동시에 목자들로서 서로 목양하고 목양받는다.
- E. 이러한 상호 목양을 통해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 엡 4:16.